

백원국 2차관 “자율주행 새싹기업 해외진출, 정부가 길 닦을 것” - 해외기관 초청 네트워킹 행사 찾아 韓 자율차 기업 세일즈 -

-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0월 18일(수) 오전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(K-City) 내 미래혁신센터에서 기업 간담회를 갖고, 이어 열린 “글로벌 네트워킹 데이”에 참석하여 해외기관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분야 국내 새싹기업의 기술력을 홍보하였다.
 - “글로벌 네트워킹 데이”는 국내 자율주행 중소·새싹기업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, 해외 주요 서비스·시험·연구기관*과의 매칭을 통해 해외 진출 사업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,
 - * 제네바 교통공사(서비스), 싱가포르 Cetran(시험·연구), 영국 MIRA·미국 가이드하우스(기술평가)
 - K-City 자율주행 시험·실증 인프라와 연계한 새싹기업의 기술연구 지원 시설인 미래혁신센터에서 개최되어 그 의미를 더하였다.
- 백 차관은 이 자리에서 “정부는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며 자율주행차 상용화 제도기반을 마련하고, 기업의 시험·연구와 서비스 실증환경을 조성하는 등 민간부문의 기술혁신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”라면서,
 - “다수의 기업들이 서울, 세종, 대구,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자율주행 셔틀·BRT·물류배송 등 혁신 서비스를 활발히 진행하며 세계적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쌓은 만큼, 세계 자율주행 기술 및 교통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있다”며 기업의 해외 영업사원을 자처했다.
- 한편, 백 차관은 행사에 앞서 개최된 미래혁신센터 입주 중소·새싹기업과의 간담회에서 “기업이 지속 가능한 사업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성능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견고한 자율주행 산업저변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”이라며 첨단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 의지를 표명했다.
- 마지막으로, 백 차관은 “정부는 민간 기술개발 성장속도에 맞춘 K-City 고도화* 등 급변하는 첨단 모빌리티 산업환경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역할을 지속 모색해나가겠다”고 강조했다.
 - * 악천후·혼잡도로·골목길 등 재현시설 구축, 가상 자율주행 시험체계 개발 등